

STORY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눈에 콩깍지 씌운 탓? 남녀 애정 얽힌 사기도 사기일 뿐

오동진 영화평론가
ohdjin11@naver.com



전청조 사기 행각, '스팅' 수준 조각 영화처럼 쾌감주지 못하고 꺼림칙

'마틴 기어의 귀향' 결혼 사기 묘사 리메이크작 '씨머스비'가 한 수 위

'화차' 일 원작 넘어선 잔혹 사기극 일말의 진실도 없는 사기꾼은 없어

가스라이팅 용어 '가스등'서 유래 사기치려고 상대방 정신적 지배도

씨네 파일

가스등(1944)
감독 조지 쿠키
주연 잉그리드 버그먼, 샤를 보와이에

스팅(1973)
감독 조지 로이 힐
주연 폴 뉴먼, 로버트 레드포드

마틴 기어의 귀향(1982)
감독 모리타 요시미츠
주연 마츠다 유사쿠, 후지타니 미와코

씨머스비(1993) (사건2)
감독 존 아미엘
주연 조디 포스터, 리처드 기어

화차(2012) (사건1)
감독 변영주
주연 이선균, 김민희



저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2012년작으로 변영주가 연출을 맡았고 이선균과 김민희, 조성하 등이 나왔다. 영화가 원작을 뛰어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건 내용과 톤앤매너 면에서 영화가 원작에 비해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문호(이선균)는 선영(김민희)과 결혼을 앞두고 지방에 사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갈 참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 선영이 사라진다. 문호는 그녀가 납치됐다고 생각한다. 여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도 하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선영의 종적은 오리무중이다. 문호는 전직 경찰 출신인 사촌 형 중근(조성하)에게 사건을 의뢰하지만 이후 그의 앞에 놓이게 되는 사실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선영이 선영이 아닌 것이다. 이름도 가짜고 살아 온 이력과 경력 모두가 가짜다.



선영이란 여자가 선영이 되기까지 슬하게 바뀌어 온 이름도 있다. 선영은 누구인가. 그녀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런 얘기를 보면 늘 당도하게 되는 결론은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속을 수 있다'다.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는 진부한 표현이 들먹여진다. 속는 상대가 있고 속을 준비가 돼있으면 속이는 건 쉽다. 속는 자는 스스로가 속기를 원하는 것이며, 어쩌면 스스로도 속아야 할 상황일 수 있는 데다 속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욕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속고 속이는 것은 따라서, 동전의 앞뒷면이다. 속는 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속이는 자에게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속는 자는 그만큼의 진실만을 보려고 한다. 일말의 진실이나 양심도 없는 사기꾼은 없다. 사기는 사기일 뿐이다.

문제는 남녀간에 벌어지는 사기 행위가 단순한 애정극의 희비극, 코미디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엔 늘 불순한 목적이 깔린다. 재물을 가로채려는 욕심이 있고 더 나은 사회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스파이질을 하려 하거나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아 돈을 받아 내려는 범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기꾼은 자신의 먹잇감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다.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의 어원은 1944년 조지 쿠키가 만든 영화가 시작이다. 샤를 보와이에와 잉그리드 버그먼이 나왔다. 세기의 미녀였던 잉그리드 버그먼이 여주인공 폴라로 나와 남편인 그레고리 역의 샤를 보와이에에게 서서히 정신이상자로 몰리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그레고리의 목적은 폴라의 막대한 재산이다. 폴라는 밤마다 방안의 가스등이 희미해

지고 다락방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지만 그레고리는 '그게 다 당신이 이상해져서야'라고 말한다. 가스등의 조도를 매일 밤 조작하는 건 그레고리다. 영화 '가스등'은 진작부터 폴라의 팬이었던(폴라는 유명 오페라 가수였다.) 런던 경시청 경위의 명민한 수사 덕에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 건 어디까지나 영화다. 현실에서는 행복한 결말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잉그리드 버그먼이 나와 '가스등'과 갯갈리지만 알프레드 히치콕의 걸작 '오명(1946)'도 남자가 여자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야기다. 여자가 먼저 목적을 가지고 남자에게 접근하긴 했다. 여자는 미국 첩보원의 정보망이자 팜파탈이다. 그가 여자를 접근시킨 대상은 나치 잔당의 두목 격이다. 여자는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하는데 남자는 곧 그녀가 나치 부흥세력을 일망타진하려는 미국의 첩자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그녀를 제거하되 서서히 병사하는 것처럼 위장하려 한다. 남자는 여자에게 매일 아침 비소를 먹인다. 그리고 그녀가 몸이 점점 허약해지고 있다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거짓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자신이 그럴 이는 걸 남자가 다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남자는 다시 여자가 그것의 거짓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 상대를 속이는 것, 사기를 치는 것은 거울 속 맞은 편이 거울 속에 비친 내 쪽의 거울이고 다시 내 쪽에 비쳐져 있는 맞은 편 거울 속의 이쪽 거울의 중첩이다. 사기를 친다는 것은 심리의 디자인으로 볼 때 매우 복잡한 이미지이다.

할리우드, 여자가 남자 이용 스토리 많아
할리우드는 현대 영화로 올수록 남자가 여자를 속이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는 이야기에 빠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1981년에 로렌스 캐스던이 만든 '보이 히트'가 딱 그런 영화였다. 윌리엄 허트와 바보 같은 사골 변호사 네드로 나온다. 그를 철저히 이용해 파멸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요염한 세시녀 매티 역은 캐서린 터너다. 캐서린 터너는 1990년작 '장미의 전쟁' 이후 체중 감량에 실패하고 '보이 히트'로 이루어 낸 섹스 심볼의 이미지를 잃었지만, '보이 히트'는 사기꾼 영화, 팜파탈 영화의 대표 격으로 아직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영화이다.

최근 전청조-남현희 스탠들을 따라가 보면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거의 '스팅' 수준으로 연출되고 조각된(조작이 아니라 조각) 수준임을 알 수가 있다. 1973년 영화인 '스팅'에서는 마틴 기어를 벌이기 위해 주인공 둘,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단 한 사람, 로렌스 올리비에를 속이기 위해 조역과 단역, 엑스트라를 수십 명 고용해 사기극을 벌인다. 그 지적 게임의 수준이 상당하다. 영화는 그래서 기이한 쾌감을 준다. 두 주인공의 사기 행각이 상대에게 들리게 되면 어쩌나 하는 서스펜스가 상당하다. 그걸 다 뚫고 사기꾼이 정통으로 통했을 때 관객들은 환호를 내지르게 된다. 주인공들도 좋은 놈은 아니지만 더 나쁜 놈을 응징하는 이야기라서다. 그러나 현실의 사기 행각은 그런 쾌감을 주지 못한다. 찻집과 이상한 공포를 유발할 뿐이다. 성공한 사기는 인생을 바꾼다. 선의가 전제돼 있을 때 얘기다. 그럴 일은 좀처럼 없다. 영화와 현실이 다른 점이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오동진 연합뉴스·YTN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이후 영화주간지 'FILM2.0' 창간, '씨네버스' 편집장을 역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컨텐츠마켓 위원장을 지냈다.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등 평론사와 에세이 '영화, 그곳에 가고 싶다'를 썼다.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Since 1982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